

#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 저소득층 지역 비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

An Ecological Analysis of Early Child Care Arrangements(2)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이영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신은주, 나종혜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 Lee, Young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Shin, EunJuh and Rha, JongHay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home environments, daily activities, caregiving behaviors of mothers, infant's verbal behaviors, attachment to mothers of home-reared infants from low SES families were observed. 30 two-year-old home-reared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at home by the time sampling method. The HOME scale, the behavioral checking lists for caregiving behaviors and for the infants' verbal behaviors, and the Attachment Q-set were used for the observations. The total HOME scores were in the middle range and the scores of "Provision of appropriate play materials" was relatively high, but "Avoidance of restriction and physical punishment" was low. The most frequent caregiving behaviors shown by mothers were "Facilitating verbal development" and "Positive social-emotional inputs". The most frequent verbal

\* 이 논문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behaviors shown by infants were "Information exchange" and "Language interpretation". The infants' attachment security scores of their mothers tended to be low.

## I. 서론

영유아기는 인간의 전생애를 통하여 볼 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 주고 나아가서는 발달을 북돋아 주는 자극을 제공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아기 환경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유아기 환경이 곧 어머니라고 보고,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양육태도 등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왔다(정순희, 1990; Donovan, & Leavitt, 1989; Mangelsdorf, Gunnar, Kestenbaum, Lang, & Andreas, 1990; Isabella, & Belsky, 1991; Pederson, Moran, Sitko, Campbell, Ghesquire, & Acton, 1990).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의 양육환경이 곧 어머니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내 다른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과의 삼원적 관계(Belsky, Gilstrap, & Rovine, 1984; Easterbrooks, 1989;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Ward, Vaughn, & Robb, 1988); 가족 자체의 특성(가족구조, 어머니의 취업, 거주환경 등)등의 여러 가지 변인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이정희, 1994; Chase-Lansdale, & Owen, 1987; Feiring, & Fox, 1987; Hoff-Ginsberg, 1991).

유아기 환경에 대한 이같은 연구들은 양육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제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아동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환경 그 자체에 대한 평가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다. 매일의 일상적인 경험이 아동 발달을 결정한다는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적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아동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영, 신은주, 나종혜(1994)는 대리양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양육환경을 중류계층의 비취업모 가정과 비교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환경의 질적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중류계층내에서의 특성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영유아 양육환경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 2세전후 유아들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을 좀 더 폭넓게 파악하고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정환경내 자극과 양육자의 행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유아의 행동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행동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언어발달과 애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분제는 다음과 같았다.

- 1)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양육환경 특성은 어떠한가?
- 2)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하루일과는 어떠한가?
- 3)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언어행동은 어떠한가?
- 4)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애착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층 가족의 양육환경 특성

저소득층이란 영세빈층, 빈곤층, 빈민층 등으로도 불리우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이 낮고 따라서 수입수준도 낮은 계층집단을 뜻한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그러나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저소득층 규정은 정부가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 범주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자활능력을 상실한 채 정부의 생계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정부의 보조와 자신들 스스로의 생존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국가에서 따로 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무의탁자를 보호하는 '시설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는 '의료부조대상자'가 포함된다(박혜인, 1992).

흔히, 저소득층을 언급할 때, '산동네' 또는 '달동네' 주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산동네, 달동네라 함은 주거지역 중심의 지칭으로 열악한 환경의 주택 및 주거지역을 뜻한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이제까지 이루어진 저소득층 연구는 주로 주거지역을 단위로 한 것이 많다. 즉,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또는 거기에서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한 도심의 노후 주거지역, 시외곽의 무허가 정착지, 불량주택 재개발 대상지역의 주민들을 도시 저소득층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허석렬, 1988).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에서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전체의 30%만이 자기집에 살고 있으며, 49.6%가 전세나 월세로 방을 얻어 거주하는 실정이었다. 한 가옥에 사는 총 세대수도 2세대 이상인 경우가 69%이었고, 4가구 이상이 사는 경우도 24%나 되었다. 한 가구당 평균 식구수는 4.03명이며, 방 하나에서 한 가구가 사는 경우도 52%나 되었다. 한 가구당 주거면적은 4평 미만이 47%, 6평 미만이 70%, 8평 미만이 81%나 되었다.

주택의 내부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난방수단, 식수공급문제 그리고 외부 생활공간의 편이도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1989)의 조사에 의하면, 우선 저소득층의 약 42%가 주택 난방수단으로 재래식 연탄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식수공급 수단으로는 옥내 수도가 약 83.7%였으나, 서울의 저소득층 주민 중 약 16.3%가 공동수도나 우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지대의 경우 여름철에도 단수가 빈번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겨울철에는 동파나 동결로 급수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이 재래식이었으며,

동네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33%나 되었다. 공동 화장실은 무엇보다도 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소변은 아예 옥내의 하수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류층 가정의 유아와 하류층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변인에 대한 계층간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고 정작 유아의 양육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소득이나 계층은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Bronfenbrenner, 1979),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환경에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계층에 따라 가정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에 대한 신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다르다(Luster, Rhoades, & Hass, 1989)고 보고되었다.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은 아동과의 놀이시간이 적고, 아동에게 말을 적게 하며, 특히 지시적인 말을 많이 하고(Farran & Haskins, 1980; Hoff-Ginsberg, 1991; Schacter, 1979), 성인과 아동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못하다(Jensen, 1967).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시 지시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라는 결과와도 일치한다(박미령, 1992, 재인용). 또한 1-3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희(198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욕구표현 행동에 대해서는 특권이나 물건을 제공하였으며, 유아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심한 꾸중을 하였다. 그러나 유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행동을 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언어나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유아가 겁내는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설명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높았다.

## 2. 양육환경특성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및 애착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측면이 언어발달과 애착이다. 성인과 유아가 상호작용할 때 양육자가 한정된 어휘와 제한된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유아가 언어로 표현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양육자가 유아의 언어를 확장시켜 주고 교정시켜 주는 경우에는 유아의 말하기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차후의 언어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형태는 유아의 사고력과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신숙희, 1987; Brown, 1976; Hess & Shipman, 1965; Hoff-Ginsberg, 1991; Moerk, 1975).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관계는 생후 초기의 발달과업으로, 이후의 다른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되어 왔고, 초기 애착유형이 인지, 사회정서 발달 등 다른 영역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Arend, Gove, & Sroufe, 1979; Mat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 Waters, Wippman, & Sroufe, 1979).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형성에 어머니의 성격,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상호작용 유형, 취업 등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Donovan et al., 1989; Mangelsdorf et al., 1990; Isabella et al., 1991; Pederson et al., 1990). 또한 학력이 낮은 어머니의 아이들이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아이들보다 격리불안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정영숙, 1976). 이 밖에도 가족의 특성, 아동의 특성 등이 유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Belsky & Rovine, 1988; Crockenberg, 1981; Egeland & Farber, 1984; Gamble & Ziegler, 1986; Owen & Cox, 1988; Sroufe, 1985).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저소득층 집단거주 지역에 사는 유

아 30명과 이들의 어머니였다. 대상선정 방법으로는 먼저 서울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현황"(1989) 자료에 있는 105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가운데 임의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곳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서 양부모가 있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취업모이며, 1994년 9월 현재 만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유아와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남아 19명, 여아 11명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주양육자행동관찰목록표, 언어행동관찰목록표, 애착 Q-set 등이었다.

가정환경자극검사(0-3세용)는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검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면접하면서 동시에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환경자극검사의 관찰자간 일치도는 Cohen의 Kappa계수로 산출한 결과 .97이었다.

주양육자행동관찰목록표는 시간표집법에 의해 주양육자(어머니)가 유아 개인을 향해 제공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목록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양육자 행동관찰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K = .85(.81-.88)$  이었고, 관찰자내 일치도는  $K = .83(.81-.86)$ 이었다.

언어행동관찰목록표는 유아 언어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양육자행동관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유아 언어행동 관찰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K = .86(.78-.94)$ 이었고, 관찰자내 신뢰도는  $K = .86(.78-.94)$ 이었다.

애착 Q-set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연구자간 일치도는  $K = .87(.84-.89)$ 이었다.

이외에 유아의 하루일과 및 가정의 일반적 환경에 관한 사항들은 자연관찰과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 3. 연구절차

가정에서의 HOME조사, 양육자 행동과 유아의 언어행동 관찰 및 애착 Q-set 분류를 위한 관찰자 훈련 및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을 위한 예비관찰이 1994년 8월 8일에서 9월 3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예비관찰 대상은 3가정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였다.

본 조사는 1994년 9월 8일에서 10월 2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7명의 관찰자가 개별적으로 각 가정을 2회씩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1회때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2회때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관찰하였다.

양육자행동 관찰과 유아언어행동 관찰은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를 향한 양육자의 행동이 나타나거나 타인을 향한 유아의 언어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다. 시간표집법에 의해 2분 관찰, 1분 기록을 1회 단위로 하여 매 방문마다 10회씩 연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한 연구대상자당 총 관찰 시간은 유아, 어머니 각각 40분이었다.

HOME은 행동관찰이 끝난 후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실시되었고,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는 관찰 방문이 끝난 후 관찰자가 평가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유아의 양육환경 특성

#### 1) 가정환경의 구조적인 측면

본 연구대상의 가족형태는 2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핵가족이었으며, 유아는 모두 부모와 동거하였다. 대부분의 아버지(83%)와 상당수의 어머니(63%)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었다. 가정의 연간 총수입은 1000만원 미만이 17%, 1000-1400만원 미만이 60%, 1500-1900만원 미만이 13%, 2000-2500만원이 3%, 2500만원 이상이 7%였다.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는 성인의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93%)이 2명이었으며, 7%만이 3명이상이었다. 승용차, 자전거, 동화책, 피아노, 정기구독잡지, 사전류 등과 같은 문화시설 구비수준은 총 19점 만점에 16점 이하인 경우가 대부

분(93%)이었다.

주거환경특성은 다세대 주거 지역으로서 각 가정이 서로 밀집되어 있고, 또한 공개되어 있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친척들이 용기종기 모여서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공간은 협소하고 침실, 거실, 식당, 부엌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달린 집에 살고 있었으며 집밖으로 나가야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 2)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수준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자극의 질적수준을 HOME으로 조사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중 정도의 수준이지만, 저소득층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놀이감을 구비해 주는 수준은 높았다(상위 25 percentile). 그러나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범주는 하위 25percentile에 속하여 우리나라 어머니의 평균적인 훈육태도에 비해, '아이에게 소리지르기', '어린이가 말썹을 부릴 때 적대감이나 성가심을 겉으로 드러내기', '아이 때리기' 등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편이었다. 그 밖의 범주, 즉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일상생활에서 자극의 다양성' 범주는 중간 수준이었다.

#### 3) 유아를 향한 어머니의 행동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행동은 언어발달촉진, 긍정적 사회정서 반응, 기본양육에 관련된 환경조성, 그리고 부정적 사회정서 반응 등의 범주였다(<표 2> 참조). 언어발달촉진 행동 범주 중에서도 질문이나 요청하기(38%), 정보 전달 및 규칙알려주기(18%), 언어적 모델보이기(15%) 등의 행동이 많았다. 긍정적 사회정서 반응 행동 범주에서는 유아의 눈을 응시하기(33%), 미소 짓기(31%) 등을 많이 하였고, 기본 양육에 관련된 환경조성에서는 실내정돈하기(37%),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기(37%) 등을 많이 하였다. 부정적 사회정서 반응행동범주에서는 금지·부정적인 표현하기

(표 1) 가정의 전반적인 질적수준(HOME)

하 위 범 주	평 균 (편차)	percentile band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	6.63 ( 2.89 )	중 50%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4.40 ( 1.11 )	하 25%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3.53 ( 0.97 )	중 50%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	5.50 ( 2.19 )	상 25%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2.57 ( 1.38 )	중 50%
일상생활에서 자극의 다양성	3.70 ( 0.84 )	중 50%
전 체	26.63 ( 6.87 )	중 50%

(41%), 인상을 쓰고 신체적으로 억압하기(24%), 말로 꾸짖기(18%) 등을 많이 하였다.

## 2. 유아의 하루일과

유아들의 전형적인 하루일과를 어머니와의 면접과 자연관찰을 통해 조사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아침 7, 8시경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기 전에 집안에서 혼자 놀거나, TV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으며, 집밖으로 나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다. 아침식사는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하였는데, 8시부터 식사하는 가정에서부터 11시경에 식사를 하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아침식사 시간이 가정마다 매우 다양하였고, 한 가정내에서도 식사시간대가 불규칙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사내용면에 있어도 식사를 거르거나 우유만 먹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머니가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이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배려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침식사후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주로 집앞 골목에서 노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동네의 또래나 동네 어른들과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른들이 유아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반면,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놀이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2세 유아들은 대부분 매일 낮잠을 1회정도 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는 시간대는 개인에 따라 달랐고, 자는 시간도 30분에서 4시간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낮잠 후에는 대부분 어머니와 함

께 집밖으로 나들이를 하였다(예를 들면, 가까운 시장이나 수퍼가기, 이웃집 또는 친척집 방문하기 등). 저녁시간이 되어 형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아버지가 퇴근한 후에는 형, 언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루중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미만이 대부분(80%)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도 외출하여 누군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와 집안에서 함께 있을 때는 책읽어주기, 노래하기, 장난감 갖고 놀기, 만들기, 그림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 3. 유아언어행동 및 애착

가정에서 유아가 보이는 언어행동을 관찰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들은 정보교환, 언어적 해석, 인지적 표상화 범주의 언어행동을 많이 하였다. 유아가 많이 하는 언어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23%), 사물이나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기(20%), 질문에 대답하기(16%), 양육자의 말을 모방하기(15%) 순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60에서 -.34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평균은 .208(SD=.248)로서, 안정성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표 2〉 유아를 향한 어머니의 행동

N=30

양육행동		빈도 (백분율)	평균(편차)	
언어발달	유아와 일상적인 대화하기	22 ( 3.06)	23.97(13.44)	
	언어적 모델을 보이기	105 (14.60)		
	언어를 확장하기	25 ( 3.48)		
	칭찬, 격려하기	47 ( 6.54)		
	도움제시, 염려의 말하기, 말로 약속하기	48 ( 6.68)		
	유아에게 질문 또는 요청하기	270 (37.55)		
	정보전달 및 규칙 알려주기	131 (18.22)		
	명명하기	32 ( 4.45)		
	책을 읽어주거나 또는 그림지적하기	20 ( 2.78)		
	유아와 함께 노래하거나 음악연주하기	7 ( 0.97)		
유아와 함께 역할놀이하기	12 ( 1.67)			
전 체	719(100.00)			
기능발달	유아-유아간 놀이 증진시키기	1 (1.56)	2.13 (2.86)	
	사회적 게임 진행하기	4 (6.25)		
	자조기술과 사회적 책임감 증진시키기	10 (15.63)		
	자신의 욕구를 유아가 인식하도록 돕기	16 (25.00)		
	유아가 욕구만족을 지연시키도록 돕기	4 ( 6.25)		
	지구력, 주의집중시간을 증가시키기	0 ( 0.00)		
	소근육, 지각기능 증진시키기	14 (21.88)		
	대근육, 운동기능 증진시키기	15 (23.44)		
	전 체	64(100.00)		
	개념발달	공간 및 시간학습 배열		0 (0.00)
계열, 범주화, 양극의 개념학습 배열		1 (5.56)		
수학습 배열		7 (38.89)		
물리적 인과성 학습 배열		10 (55.56)		
전 체		18(100.00)		
긍정적 사회정서	유아에게 미소짓기	71 (31.00)	6.73 (5.84)	
	높고 온정적이거나 고무적인 역할사용하기	35 (15.28)		
	신체적인 애정접촉하기	47 (20.52)		
	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눈과 눈을 응시하기	76 (33.19)		
	전 체	229(100.00)		
부정적 사회정서	말로 비판하고 꾸짖고 위협하기	32 (17.88)	5.07 (4.35)	
	금지, 부정적인 표현하기	74 (41.34)		
	인상을 쓰고 신체적으로 억압하기	43 (24.02)		
	물리적으로 유아를 격리하기	0 ( 0.00)		
	유아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할 때 무시하기	20 (11.17)		
	체벌하기	6 ( 3.35)		
	무시해야 할 부정적인 행동에 주의하기	4 ( 2.23)		
	전 체	179(100.00)		
기본양육 (유아)	기저귀갈기, 배변, 옷입히기, 씻기, 청소하기	53 (34.19)	3.97 (3.20)	
	신체적인 도움제공, 자는 것 돌봐주기	53 (34.19)		
	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24 (15.48)		
	유아를 안아주기	25 (16.13)		
	전 체	155(100.00)		
기본양육 (환경)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72 (36.55)	5.97 (3.18)	
	실내정돈하기	73 (37.06)		
	다른 양육자 돕기	3 ( 1.52)		
	활동준비, 유아에게 자극적인 환경 배치하기	49 (24.87)		
	전 체	197(100.00)		
전 체		1561	52.13(29.09)	

〈표 3〉 유아의 하루일과

시 간	활 동	
오 전	기상(7:00-8:00) 혼자 놀이 (TV 어린이 프로 시청, 집밖에 나갔다 오기, 노래 테이프 듣기 등) 세면, 식사(8:00-11:00 엄마랑 함께) 놀이(혼자, 형제, 친구, 친척, 엄마) 실내 : 장난감, 그림그리기, 책보기 실외 : 주로 집앞 골목에서 놀기 예)가게구경, 계단 오르내리기, 놀이터 낮잠(10:00-15:00)	
오 후	점심식사(13:00-14:00) 외출(엄마와 시장, 슈퍼, 친척집 방문) 놀이(혼자, 형제, 친구(이웃 또래), 엄마) 실내 : TV 보기, 블록 놀이, 책보기, 퍼즐, 언니나 오빠 따라다니기, 그림 카드 보기 실외 : 달리기, 빵빵차, 자전거 타기, 공놀이	
저 녀	놀이(혼자, 형제) 저녁식사(19:00-20:00) 자유놀이(아빠, 엄마, 혼자, 형제, 친척) : TV 시청, 신체적 놀이, 노래하기 등 취침(22:00-24:00경)	
어머니와 함께	0-2시간	24
보내는 시간	2-4시간	6
	4-6시간	0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	외출, 책보기, 노래, 장난감 갖고 놀기, 만들기, 그림그리기	

## 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지역 가정에서 2세 전후 유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과 이 유아들의 언어행동과 애착안정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이를 선행연구 중 중산층 가정의 자료와 함께 비교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소득층 유아의 양육환경

첫째, 가족형태는 대부분이 핵가족이었으나, 여러 가구가 서로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

에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는 어머니 이외의 다양한 성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문화시설 구비수준 등은 중류층대상 연구결과(이 영 외 2인, 1994)와 비교하여 볼 때 낮았다( $t = 2.81, p < .05$ ;  $t = 3.82, p < .001$ ;  $t = 7.38, p < .001$ ).

둘째,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자극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 정도의 수준으로서 중류층대상 연구결과(이 영 외 2인, 1994)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상 25percentile vs 중 50percentile).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에서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의 평균적



〈표 4〉 유아의 언어행동

언어행동범주	평균 (편차)	범주 별 행동	빈도(백분율)
모 방	3.27 (2.66)	양육자의 말을 모방한다	98 (15.05)
정보교환	10.37 (7.40)	양육자에게 질문한다	63 ( 9.68)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147 (22.58)
		질문에 대답한다	101 (15.51)
언어적 해석	7.87 (2.64)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언어화한다	19 ( 2.92)
		사물이나 사건을 언어로 표현한다	131 (20.12)
		자신의 행동을 언어로 묘사한다	22 ( 3.38)
인지적 표상화	5.37 (5.26)	과거의 경험을 묘사한다	4 ( 0.61)
		자신의 계획을 묘사한다	6 ( 0.92)
기 타	2.00 (1.66)	노래부르기	17 ( 2.61)
		유아의 언어행동 중에서 위에 속하지 않는 것	43 ( 6.61)
전 체	21.70 (14.35)		651(100.00)

인 훈육태도에 비해 ‘아이에게 소리지르기’, ‘아이 때리기’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놀이감을 구비해 주는 수준에서는 중류층과 거의 유사하게 매우 높았다(상 10percentile vs 상 25percentile).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위한 물질적인 제공은 풍부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하위범주 즉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 ‘물리적 환경’, ‘모성적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자극의 다양성’ 등의 범주에서 중류층에 비해 수준이 낮았다(상 25percentile vs 중 50percentile).

셋째, 양육자의 실제 행동에서 유아가 하루동안 겪는 경험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양이 대체로 적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내용을 중류층 어머니(이 영 외 2인, 1994)와 비교했을 때 중류층 어머니에 비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t=4.31, p<.001$ ), 반면에 기능발달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 $t=3.80, p<.001$ )이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언어발달촉진 행동과 긍정적 사회정서 반응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등 양육자 행동 양상에 있어서는 중류층 어머니와 유사한 측면도 있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사회정서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는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를 조사한 HOME의 결과와도 일치한

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다세대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2세 유아의 하루일과를 보면, 유아들은 집안에서보다 동네에서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집안에 있을 때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역 아동들 경우는 어머니와 유아가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적었다(80%가 일일 2시간 이내). 한편, 유아가 주로 접촉하는 성인은 중류층의 경우 주로 어머니였던 반면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유아들은 이웃어른을 포함한 다양한 성인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또한 기상, 식사, 낮잠, 세면 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일과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유아들은 매우 불규칙하였다. 특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하거나 고른 영양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식사를 거르거나 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류층 어머니들은 아동의 흥미나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외출을 많이 하는 반면, 본 연구 대상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흥미나 교육을 의도하여 외출하기 보다는 이웃방문을 위한 외출이 많았다.

그 밖에도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유아에게 장난삼아 담배를 피워보게 하거나 노름하는 장소에 함께 구경하게 하는 등 유아가 비교적 성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청결이나 위생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 2세 유아를 훈육할 때 설명을 하거나 타이르기 보다는 큰 소리를 치거나 가볍게 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 2. 유아의 행동

저소득층 주거지역 유아들의 언어행동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많이 보인 행동은 타인과의 정보교환, 언어적 해석 범주였으며, 인지적 표상화의 범주에 해당되는 언어행동은 극히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신은주, 1993; 이영 외 2인, 1994). 유아들의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참고해 볼 때, 어머니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극히 적으며 또 상호작용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지 못하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유아들이 언어행동에 있어서는 중류계층의 유아들과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은, 하루일과에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적지만 어머니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 아동들과 잦은 접촉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낮았다(나중혜, 1994; 이영 외 2인, 1994; 이정희, 199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가정환경 자극 수준이 중 정도였던 점, 특히 애착 안정성 점수가 낮았던 유아들의 가정 환경 자극 수준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더욱 낮았던 점을 볼 때, 가정 환경 자극 수준과 애착간의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이정희, 1994)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사회정서 반응을 많이 보였고, 훈육태도에서도 부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자녀들을 따뜻하게 다루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러한 반응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낮아진다는 나중혜(1994) 연구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으며, 집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적은 점, 어머니 외에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점 등에서 낮은 애착안정성 점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2세전후의 유아들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가정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육환경의 질적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일과를 통해서 본 일상생활이나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환경적 자극의 수준(HOME)으로 볼 때, 이들 유아의 생활환경속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측면은 위생, 영양, 규칙적 생활습관, 질서정신은 물론 어머니와의 집중적인 일대일 상호작용과 공동활동, 시간, 내용 등이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을 받는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애착 안정성 수준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면서, 연구문제 특성상 대상선정기준에서 양부모가 있고,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만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받을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편부모가족이 포함될 수 없었다. 본 연구대상의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은 선행연구(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와 유사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에서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은 연구가 시행된 시기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선행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노년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선정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를 둔 비취업모 가정만으로 국한시켜 비교적 젊은 연령층(아버지 평균 33, 어머니 30세)만을 포함한 점, 그리고 제한된 주거지역 수(3곳)에서 적은 수를 표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저소득층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자녀에게 영양을 골고루 제공하고 청결 및 질서의를 심어주며, 자녀들을 좋지 못한 성인문화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애착 안정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어머니의 행동 또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에서 애착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유아와 눈 마주치기, 미소, 신체적인 애정접촉, 온정적이거나 고무적인 억양 사용 등을 좀 더 많이 해주고 금지나 부정적인 표현하기, 인상을 쓰거나 신체적 억압하기, 꾸짖고 위협하기, 유아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할 때 무시하기 등의 부정적인 행동은 적게 해주는 것이 안정된 애착과 관련됨을 근거로 이와 같은 적절한 훈육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따뜻하게 상대해주고 야단칠 때 무작정 때리기 보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이유를 묻는 등의 적절한 애정표현 방법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교사가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해주고 기능축진 행동을 많이 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에게 미소짓고, 신체적인 애정접촉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반응을 많이 하고, 아동의 개념발달 및 기능발달을 위한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1) 김영희(1986).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나종혜(1994).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pp.55-95. 서울: 하우.
- 4) 박혜인(1992). 현대사회와 도시저소득층 가족.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pp. 7-28. 서울: 하우.
- 5) 서울특별시(1989). 저소득층 생활안정 통합시책. 서울특별시.
- 6) 서관모(1985).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서울: 한울.
- 7) 신숙희(1987). 어머니의 언어형태와 유아의 언어·사고능력 및 창의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신은주(199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옥선화(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pp.29-54. 서울: 하우.
- 10) 이영·신은주·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2), 37-54.
- 11)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정순희(1990). 어머니-유아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정영숙(1975).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조 형(1985). 한국도시 비공식부문과 빈곤. 박현채외(편). 한국사회의 재인식(1). 서울: 한울.
- 15)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 16) 허석렬(1988).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재생산. 사상과 정책. 겨울호.
- 17) Arend, R., Gove, F. L., & Sroufe,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18)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19)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20) Bronfenbrenner, U. (1979).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이영역 (1992). 『인간발달 생태학』, 서울 : 교육과학사.
- 21) Brown, D. (1976).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 Harvard.
- 22) Chase-Lansdale, P. L., & Owen, M. T. (1987). Maternal employment in a family context : Effects o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58, 1505-1512.
- 23)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24) Donovan, W.,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 25) Easterbrooks, M. A. (1989). Qual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 Effects of perinatal risk status. *Child Development*, 60, 825-830.
- 26)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27) Farran, D. C., & Haskins, R. (1980). Reciprocal influence in the social interactions of mothers and three-year-old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51, 780-791.
- 28) Feirring, C., & Fox, N. A. (1987).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00-405.
- 29) Gamble, T. J., & Ziegler, E. (1986). Effects of infant day care : Another look at the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26-42.
- 30)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837.
- 31) Hess, R. D., & Shipman, O. C. (1965).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 869-886.
- 32) Hoff-Ginsberg, E. (1991).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 782-796.
- 33)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34) Jensen, A. R. (1967). Social class and verbal learning. In J. P. Dececco(Ed.), *The Psychology of language, thought and instruction*. NY : Rinehart and Winston.
- 35) Luster, T., Rhoades, K., & Hass, B.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139-147.
- 36) Mangelsdorf, S., Gunnar, M., Kestenbaum, R., Lang, S., & Andreas, D. (1990). Infant proneness-to-distress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and mother-infant attachment : Association and goodness of fit. *Child Development*, 61, 820-831.
- 37)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38) Moerk, E. L. (1975). Verbal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during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788-794.
- 39) Owen, M. T., & Cox, M. J. C. (1988).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 Longitudinal research*(pp. 85-119). New York : Plenum.
- 40)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41) Schacter, F. F. (1979). *Early mother talk to toddlers : Early intervention*. NY : Academic Press.
- 42)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 The root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Developmental and policy concern- 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3), NJ : Hillsdale, Erlbaum.
- 43) Ward, M. J., Vaughn, B. E., & Robb, M. D. (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sibling :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44)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